



한국물류협회 CLO포럼, 일본 우수 물류 벤치마킹을 마치고

- 한일 국제물류세미나 개최, 일본물류현장 견학 등 다양한 행사 참여

- 한국물류협회 회원서비스사업부 이 민 수 부장



KLA CLO포럼은 2001년 창설한 국내 물류담당 부서장 및 물류본부장들의 상설 연구 및 토론의 장으로 기업의 물류혁신과 물류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국내외 우수 물류 현장을 방문, 물류산업의 최신 동향 탐색과 이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자사의 물류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물류부문 최고의 휴먼네트워크를 통해 상생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선진우수물류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진행된 4월 포럼은 이현주 CLO 포럼회장(블리스물류 대표이사)을 비롯한 40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지난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본 오사카, 고베, 아와지 지역의 선

진물류현장 및 시설을 방문하고 글로벌선진국의 물류동향과 한국물류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 보는 시간으로 기획되었다.

4월 포럼에서는 고베 대지진 이후 급변하고 있는 고베 항만시설과 다이후쿠(DAIFUKU) 일신관의 물류설비 전시장, 일본 최대의 포장전시회인 A-PACK 2007 오사카 전시회 등을 참관하였다. 또, 한일간의 국제물류세미나도 개최되었는데, '일본의 Material Handling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다이후쿠(DAIFUKU) FA&DA사업부의 마사노리 츠지모토 이사가 발표하였으며, 다음날에는 '선진국의 물류 동향 및 한국물류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김정환 한국물류전략연구소 소장, 이부경 (주)시스네트 부사장이 각각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고베항만시설을 견학하였다. 1868년에 개항된 고베항은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으로 고베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심이 깊고 기후가 온난하여 천연적인 항구의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항구의 시설을 정비하고 항구의 서비스도 충실하게 개선시켜, 일본최대의 국제 무역항으로 발돋움 해 오고 있다.

고베항의 명성을 드높인 것은 인공섬 포트 아일랜드(Port Island)와 로코 아일랜드(Rokko Island)터미널이 가동을 하면서 부터라고 한다. 포트 아일랜드는 고베 앞바다에 15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981년 131만평의 규모로 4개의 컨테이너선 선석 등 총 19개의 선석을 갖추고 개장하였고 그 후 2단계로 6 선석을 추가해 현재는 32개의 선석을 갖추고 있다. 로코 아일랜드는 1992년 175만평에 컨테이너선 선석 13개와 기타 여객선 선석 등을 포함해 26개의 선석으로 출발하였다.

고베항의 포트 아일랜드와 로코 아일랜드는 개발 단계부터 터미널 시설과 함께 물류기지, 창고, 도시 기반시설, 배후수송망 등을 완벽히 갖추었다. 항만의 수출입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고속도로가 고베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도 연결될 수 있도록 고가도로 방식 등으로 건설하여 철도 또한 거미줄처럼 일본 전역을 커버하고 있으며 바지선 등 해상을 통한 수송망도 잘 발달돼 있다.

고베항만의 로코아일랜드에 위치한 고베 베이 웨라톤호텔 세미나실에서 순차통역으로 진행된 한일 국제물류세미나에서 다이후쿠(DAIFUKU) 마사노리 츠지모토 이사가 '일본의 Material Handling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는데,

주제발표에서 마사노리 츠지모토 이사는 일본 현재의 매트리어얼 핸들링에 대한 사례와 역사적 발전과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일본의 경영자 측에서 본 매트리어얼 핸들링은 운반



보관 구분하는 등의 초보적인 수준에서 점점 변화되어 이제는 환경물류라는 측면에서 자원절약부문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가 아직 비용절감이라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일본을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였다. 또 일본에서는 MH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화 기술과 공동으로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도 이들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컴퓨터 시대에서 바코드로 발전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간 제휴가 활발해 졌고, SCM을 통하여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인화, 협조화, 고능력화로 구분될 수 있다. 무인화는 1982년에 전체를 MH로 시스템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자동공작기와 조립기를 AGV에 결부한 자동창고시설이었다. 이후 협조화는 1991년의 부품제조공장의 예로 제조기와 자동창고가 한데 연결된 단독시스템을 컴퓨터와 사람의 판단에 의해 운영되었다.

마지막 단계인 고능력화는 지난 2003년의 음료공장 사례에서 SCM 개념으로 재고의 높은 회전율을 요구하며, MH설비(예를 들면, 자동창고)의 고능력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발전방향을 보면 제1단계 인력감축을 위해 물류로봇 부문이 발전할 것이며, 제2단계는 전체발전으로 일본의 인구감소에 대응한 로지스틱스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전략이다. 한마디로 로지스틱스의 전자동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트럭의 자동적재나 하역, 자동입출고, 전자테크를 이용한 자동입고, 출고 자동검품 등이다. 이날 발표된 일본의 MH의 발전에 IT강국인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앞서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앞서게 되었다.

다음날, 오전에는 시가현에 위치한 다이후쿠 일신관(HINI ARATA KAN)의 물류설비 전시장을 방문하였다. 다이후쿠는 1937년 설립되면서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오늘날에는 풍부한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와 다양화 되고 진보된 물류시스템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의 가전, 자동화기기, 식자재, 도소매에 대한 보관, 하역, 분류, 피킹 등 토탈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이후쿠가 제공하는 모든 물류서비스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이후쿠 일신관으로 다이후쿠 기업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본 물류역사를 한번에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한다”는 다이후쿠의 사훈을 의미한다는 일신관(日新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물류관련전시관으로써 1994년 개장한 이래 20만여 명이 방문하였다고 하며, 150여 종류의 400여 제품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물류시스템과 메트

리얼 핸들링 부품 및 솔루션을 보고, 이해시키고 체험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고객으로 확보한다는 홍보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았다.

1층에는 보관·관리시스템과 자동차조립라인을 전시하고 있으며, 2층에는 소팅시스템과 컨베이어 시스템 그리고 물류기기와 피킹시스템, 3층에는 40개 벤더로부터 물류 관련한 150여 물류관련 제품들을 전시하는 종합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후에는 물류분야의 하나인 포장 전시회를 방문하였다. 물류업계에서는 아직 포장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친환경 물류가 발전되어 있는 만큼 포장산업부터 관심을 갖는 것이 부러웠다.

A-PACK 2007 오사카 전시회는 1981년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는 일본 최대의 포장전문전시회로서 최근 일본 경제의 재도약과 더불어 2007년 21세기 포장과 물류의 새로운 기술 창조를 테마로 진행되었다. 물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문의 하나인 포장에 대해 다시한번 중요성을 보여줬다. 포장산업의 발전은 물론 포장산업 분야를 어떻게 물류분야와 접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참관자들의 평가도 있었다.

마지막 날, 아와지시마의 미나미아와지 로얄호텔에서 “선진국의 물류동향과 한국 물류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물류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물류전략연구소의 김정환 소장과 (주)시스넷의 이부경 부사장이 각각 준비된 주제발표를 하였고 이현주 포럼회장의 사회로 토론의 장이 전개되었다.

3박 4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물류를 대표하며 물류산업 발전의 주역이 되고 있는 CLO포럼 회원들은 모두가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동북아 물류강국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였다.

아울러 이번 선진물류 벤치마킹 일정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업체방문에 대한 협의를 위해 애써 주신 김정환 소장과 전 일정중 일본어 통역을 열심히 해주신 이부경 부사장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물류**